

대졸자 노동시장 이행 기간과 첫 일자리

유명환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곽은혜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I 서론

우리나라 청년들의 고용 부진 및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는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인 노동시장 문제로 언급되어 왔으며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또한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29세 청년실업률은 2010년 7.9%에서 점차 증가하여¹⁾ 2016년 9.8%에 육박했고 2020년까지도 9%의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노동시장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일자리가 생애 전반에 걸쳐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경력 초기에 발생하는 장기 미취업과 첫 일자리에서의 경험은 인적자본 축적과 미래에 대한 목표, 생애 소득 궤적에 장기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최종 교육 수준을 마칠 무렵 경기침체로 인해 첫 일자리로의 이행 기간이 길어졌거나 좋지 않은 일자리를 경험한 청년은 그 부정적 영향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일반적인 결론이다(예컨대, 한국의 경우 Choi et al., 2020; 곽은혜, 2021). 청년들이 겪는 노동시장 이행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노동력 손실, 국가 경쟁력 약화, 정부의 재정 손실, 사회의 불안정성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임도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대졸 취업자의 평균 첫 구직기간은 졸업 후 10~12개월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1) 원자료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0~2020)을 참고함.

자료: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 https://eboard.moel.go.kr/indicator/detail?menu_idx=72# (검색일자 2023. 5. 24.)

수치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시적 일자리, 불안정한 일자리 취업까지 모두 포함한 평균적 이행 기간으로 그 이면에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숨어 있다. 예컨대, 일자리 안정성과 일정한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도 같은 기간이 소요될 것인지, 구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낙인효과는 발생하지 않는지, 최종 학력, 전공, 성별의 격차는 나타나지 않는지 등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의 첫 구직기간과 양질의 일자리 취업에 관한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이에, 일반적인 노동시장 이행이 아닌 안정적 일자리 취업을 위한 노동시장 이행 기간에 있어서 최종 학력, 성별, 전공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첫 구직기간이 취업 가능성과 첫 일자리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았다. 노동시장 이행 기간에 대한 다양한 분석 결과를 통해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문에서는 노동시장 이행 기간이 성별, 학력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살펴본다. 다음으로 일자리의 질에 따라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 가능성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구직기간과 첫 일자리 질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경제활동인구조사(2017~2021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노동시장 이행 기간의 성별, 학력별 차이

먼저 노동시장 이행 기간에 대한 정형화된 사실을 살펴보고자 성별, 학력별로 취업 기간을 계산하였다. 본 절을 포함하여 이후 분석에서는 최근 5년(2017~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5월 청년층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데이터의 조사 대상은 만 15~34세이고,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은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으로 한정한다.

노동시장 이행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 생존분석을 이용하였다. 생존분석이란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기까지에 이르는 시간에 대한 분석을 일컫는다. 생존분석은 첫 일자리 경험이 없는 표본도 추정에 포함하고, 이를 통해 구직기간에 따른 평균 취업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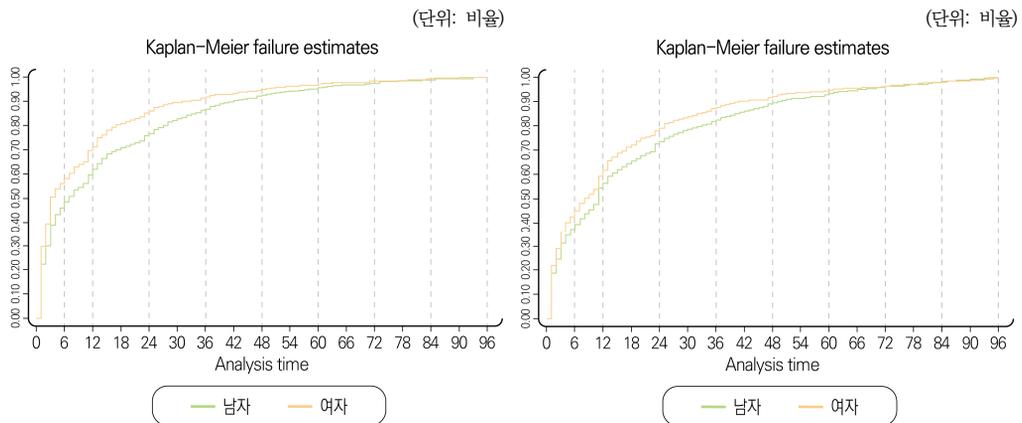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실패함수(failure function, $F(t)$)를 먼저 정의해야 하는데, 이는 연구자가 관찰하는 이벤트가 주어진 시점 t 이전에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고, 본 분석에서 이벤트는 첫 취업을 의미한다($F(t) = \Pr(T < t)$).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는 1에서 실패함수(failure function)를 뺀 값으로 정의되고, $S(t) = \Pr(T \geq t)$, 생존시간(T)이 특정 시점 t 이상일 확률을 의미한다. 본 분석에서 생존시간은 첫 구직기간(졸업 이후부터 첫 일자리 시작 전)을 의미한다. 생존함수 추정은 Kaplan-Meier 추정법(nonparametric maximum-likelihood estimate, Kaplan and Meier, 1958)을 사용하였다²⁾.

추정 결과는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한다. [그림 1]은 전문대학 졸업생만을 포함한 결과이고, [그림 2]는 4년제 대학 졸업생만을 포함한 결과이다. 가로축은 구직기간, 세로축은 취업 확률을 나타낸다. 예컨대, 가로축 6에 해당하는 세로축 값은 졸업 후 6개월까지 취업 할 확률을 나타낸다.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첫 취업을 한 시점과 졸업 시점의 차이를 첫 구직 기간으로 정의하고, 8년이 넘어도 첫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1. 전문대학 졸업 남성과 여성의 구직기간에 따른 취업 확률

그림 2. 4년제 대학 졸업 남성과 여성의 구직기간에 따른 취업 확률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2017~2021.

주: [그림 1]은 전문대학 졸업자, [그림 2]는 4년제 대학 졸업자만을 포함함. 졸업 후 직업을 가진 적이 있거나 계속 구직 상태인 경우를 모두 포함함. 졸업 전 구직을 한 경우 구직기간이 없는 것(0)으로 간주함. 구직기간이 8년(9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중치 사용.

[그림 1]과 [그림 2] 모두에서 여성의 구직기간이 남성보다 짧고 두 취업 가능성 함수는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 전문대학 졸업 남성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취업할

2) 생존함수의 동일성 검정 결과 연도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여, 안정적인 표본 수 확보를 위해 5개 연도 모두를 분석에 포함하였음.

확률이 38.9%, 6개월 이내 45.8%, 12개월 이내 61.9%, 24개월 이내 76.4%이다. 36개월을 넘어서는 경우도 13.5%에 달한다. 전문대학 졸업 여성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취업할 확률이 50.4%로 남성(38.9%)보다 크게 높은 값을 보인다. 여성이 6개월 이내 취업할 확률은 58.1%, 12개월 이내 71.2%, 24개월 이내일 확률은 85.8%이다. 36개월을 넘어설 확률은 8.3%로 남성(13.5%)의 61% 수준으로 낮다.

4년제 대졸 남성과 여성 모두 초대졸 남성과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 이행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여성의 대학 종류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4년제 대학 졸업생의 경우(그림 2) 남성과 여성의 이행 기간 차이는 전문대학 졸업생의 남녀 격차보다 작다. 4년제 대학 졸업 남성이 3개월 이내 취업할 확률은 31.4%, 6개월 이내 39.2%, 12개월 이내 56.3%, 24개월 이내 73.6%이며, 36개월을 넘어설 확률은 17.7%이다. 4년제 대학 졸업 여성이 3개월 이내 취업할 확률은 36.2%로 남성보다 4.8%p 높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6개월 이내에 취업할 확률은 44.8%, 12개월 이내 61.7%, 24개월 이내 79.1%이며, 36개월을 넘어설 확률은 12.4%로 남성보다 5.3%p 낮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노동시장 이행 기간이 짧다. 남성은 초대졸 남성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남성의 첫 일자리 평균 이행 기간이 거의 같으나 여성은 초대졸 여성의 이행 기간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의 이행 기간보다 크게 짧아 남성과 여성의 구직기간 격차가 전문대학 졸업생 사이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Ⅲ 구직기간에 따른 취업 가능성과 첫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으로 취업의 정의를 다양하게 하여, 구직기간에 따른 첫 취업 가능성과 첫 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취업의 종류는 아래 네 가지로 정의하였다. 취업의 종류를 달리하여 분석함으로써,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시적 취업을 제외하고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하기까지의 이행 기간이 일반적인 첫 일자리로의 이행 기간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알 수 있다.

- ① 어떤 직업이라도 첫 취업에 성공한 경우를 취업으로 정의
- ② 정규직 직업을 가진 경우만 취업으로 정의
- ③ 월 200만 원 이상의 직업만 취업으로 정의
- ④ 전공일치 취업만 취업으로 정의

추정모형은 Weibull 분포를 가정한 비례위험(proportional hazard) 모형을 사용한다. 개인 j 가 t 시점에서 취업할 확률 $h(t_j)$ 는 위험함수(hazard function)라고 부르고, 이는 주어진 특정 시점 t 까지 구직 활동을 하던 사람이 그 시점에 취업할 순간 취업 확률을 의미한다. 모형에서 $h(t_j)$ 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h(t_j) = h_0(t)\exp(X_j\beta)$$

$h_0(t)$ 는 구직기간 t 에 따른 기저 위험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³⁾이고, 다음의 함수로 가정한다: $h_0(t) = pt^{(p-1)}$. Weibull 분포를 가정한 모형에서, 추정된 p 값이 1보다 작으면 구직기간(t)이 길어짐에 따라 기저(baseline) 취업 확률이 감소하고, p 값이 1보다 크면 구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기저(baseline) 취업 확률이 증가한다. p 값이 특별히 1이면 취업 확률이 구직기간에 상관없이 일정함을 의미한다. X_j 는 절편을 포함한 설명변수 벡터로, 대학 졸업 당시 나이, 성별, 졸업 전 직장 체험 여부, 졸업 전 직업교육 여부, 전공(인문사회, 예체능, 교육, 자연, 공학, 의약) 더미를 포함한다.

분석표본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조사 시점까지 취업 경험 없이 구직 중이거나 1개의 직업을 가진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는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한계로 인해 두 번째 이후 직업을 시작한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규직 취업을 취업 성공으로 정의하였을 때 첫 번째 일자리는 비정규직이었고 두 번째 일자리가 정규직이었으면 두 번째 일자리를 시작한 시점까지를 구직기간으로 보아야 하지만 이때 두 번째 이후 일자리 시작 시

3) 모든 설명변수 X_j 가 0일 때의 취업 확률: $h_0(t)\exp(\beta_0)$. β_0 는 절편항을 의미함.

점을 알 수 없어 구직기간을 구할 수 없다.

〈표 1〉과 〈표 2〉는 각각 전문대학 졸업생과 4년제 대학 졸업생 분석표본의 요약 통계를 나타낸다. 먼저 〈표 1〉을 살펴보면 표본의 17%는 졸업 후 미취업 상태에 있고, 83%는 취업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표본 중 66%의 첫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 23%는 월 200만 원 이상의 일자리, 54%는 전공일치 일자리로 첫 취업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미취업, 취업, 정규직 표본에서 남성 비율은 48~51%로 남성과 여성의 분포가 비슷하지만, 고임금 일자리 표본에서는 남성이 68%로 그 비율이 여성보다 높다. 졸업 나이는 22~23세 수준으로 모든 표본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 직업교육 경험이 있는 청년 비율은 22~26%로, 표본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직업체험 경험이 있는 청년은 취업 표본과 정규직 표본에서 56%, 전공일치 표본에서 60%로 미취업(51%)과 고임금(53%) 표본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인문사회계열 전공은 미취업 표본에서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교육계열 전공이 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다. 공학 전공은 미취업 표본에서 31%로 인문사회계열 전공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고임금 표본에서는 50%가 공학계열 전공자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미취업자의 이행 기간은 졸업 시점부터 조사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평균 30개월째 구직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취업자의 평균 이행 기간은 17개월이고, 이행 기간이 가장 긴 표본은 고임금 일자리 표본(17.8개월), 가장 짧은 표본은 전공일치 일자리 표본(14.8개월)이다.

표 1. 전문대학 졸업생 분석표본 요약 통계

	미취업		취업		정규직		고임금		전공일치	
	0.17		0.83		0.66		0.23		0.54	
	평균	표준편차								
남성	0.51	0.50	0.48	0.50	0.50	0.50	0.68	0.47	0.46	0.50
졸업 나이	22.60	1.94	22.71	1.83	22.77	1.79	23.32	1.94	22.82	1.90
직업체험	0.51	0.50	0.56	0.50	0.56	0.50	0.53	0.50	0.60	0.49
직업교육	0.26	0.44	0.23	0.42	0.22	0.42	0.23	0.42	0.24	0.43
인문사회	0.40	0.49	0.31	0.46	0.30	0.46	0.24	0.43	0.26	0.44
예체능	0.12	0.32	0.12	0.32	0.11	0.31	0.07	0.25	0.10	0.30
교육	0.03	0.17	0.07	0.25	0.06	0.23	0.03	0.18	0.08	0.28

〈표 계속〉

	미취업		취업		정규직		고임금		전공일치	
	0.17		0.83		0.66		0.23		0.54	
	평균	표준편차								
자연	0.06	0.24	0.05	0.21	0.05	0.21	0.03	0.18	0.05	0.21
공학	0.31	0.46	0.32	0.47	0.34	0.47	0.50	0.50	0.33	0.47
의약	0.09	0.28	0.14	0.34	0.15	0.36	0.13	0.33	0.18	0.39
이행 기간	30.34	39.89	17.03	24.84	16.82	24.51	17.82	25.61	14.81	23.49
관측치	544		2662		2107		738		174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2017~2021.

주: 전문대학 졸업자, 졸업 후 계속 구직 상태이거나(미취업) 직업을 한 번 가진 경험이 있는 경우를 포함함. 졸업 전 구직을 한 경우 구직기간이 없는 것(0)으로 간주. 가중치 사용.

<표 2>는 4년제 대학 졸업생 분석표본의 요약 통계를 보여 준다. 표본의 20%는 졸업 후 미취업 상태에 있고, 80%는 취업 경험이 있다. 표본의 65%는 정규직, 35%는 고임금, 54%는 전공일치 일자리를 첫 일자리로 가진다. 취업, 정규직, 전공일치 일자리 비율은 전문대학 졸업자와 큰 차이가 없으나 고임금 일자리 비율은 4년제 대학 졸업생이 10%p 이상 크게 나타난다. 전문대학 졸업자 표본과 마찬가지로 고임금 일자리 표본에서 남성 비율이 59%로 여성 비율보다 높고 나머지 취업 표본에서의 성비는 거의 같다. 졸업 나이는 25세 수준으로 미취업 표본을 포함하여 모든 표본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

미취업 표본이라 할지라도 직업체험을 하고 직업교육을 받은 청년 비율이 다른 표본과 비교하여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미취업 표본의 50%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의약이 4%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인다. 정규직 일자리 표본에서 인문사회계열 전공이 42% 공학계열 전공이 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고임금 일자리 표본에서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이 39%, 공학 전공이 33%로 역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 미취업 표본 청년의 졸업 후 평균 구직기간은 27개월로 전문대학 졸업생 표본보다 약 3개월 짧다. 전체 취업자 및 정규직 일자리 표본에서의 평균 구직기간은 16개월이고 고임금 및 전공일치 일자리 표본의 평균 구직기간은 15개월로 나타난다. 전문대학 졸업자 표본에서는 고임금 일자리 표본의 이행 기간이 평균 취업자 이행 기간보다 길었으나 4년제 대학 졸업자 표본에서는 더 짧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표 2. 4년제 대학 졸업생 분석표본 요약 통계

	미취업		취업		정규직		고임금		전공일치	
	0.20		0.80		0.65		0.35		0.54	
	평균	표준편차								
남성	0.50	0.50	0.49	0.50	0.50	0.50	0.59	0.49	0.47	0.50
졸업 나이	24.96	1.87	24.69	1.74	24.71	1.72	24.96	1.73	24.63	1.74
직업체험	0.61	0.49	0.62	0.49	0.62	0.49	0.62	0.49	0.61	0.49
직업교육	0.34	0.47	0.30	0.46	0.30	0.46	0.31	0.46	0.29	0.46
인문사회	0.50	0.50	0.42	0.49	0.42	0.49	0.39	0.49	0.37	0.48
예체능	0.08	0.27	0.07	0.25	0.06	0.23	0.03	0.18	0.07	0.25
교육	0.07	0.25	0.08	0.28	0.08	0.27	0.08	0.26	0.10	0.30
자연	0.09	0.28	0.08	0.26	0.08	0.26	0.08	0.26	0.07	0.26
공학	0.23	0.42	0.26	0.44	0.27	0.45	0.33	0.47	0.28	0.45
의약	0.04	0.19	0.09	0.28	0.09	0.29	0.10	0.30	0.11	0.32
이행 기간	26.79	29.71	15.89	21.13	15.97	20.84	14.95	20.04	14.51	19.89
관측치	1535		6182		5031		2663		4203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2017~2021.

주: 4년제 대학 졸업자. 졸업 후 계속 구직 상태이거나(미취업) 직업을 한 번 가진 경험이 있는 경우를 포함함. 졸업 전 구직을 한 경우 구직기간이 없는 것(0)으로 간주. 가중치 사용.

〈표 3〉과 〈표 4〉는 각각 전문대학 졸업생과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순간 취업률이 구직기간, 졸업 나이, 성별, 직업 관련 교육 여부, 전공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추정된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p 추정치 결과를 통해 졸업 후 구직기간에 따른 이후 취업 가능성을 살펴보면, 모든 모형에서 p가 1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직기간이 증가할수록 취업 가능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구직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순간 취업 가능성은 모든 취업 정의에서 감소한다. 절편 항과 p 추정치를 통해 취업 종류별로 기저 위험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일반취업의 경우보다 정규직, 고임금, 전공일치 취업을 취업 성공으로 가정할 경우 매해 순간 취업 가능성이 더 낮다. 특히 고임금 일자리에서 순간 취업률이 가장 낮고, 일반취업에서는 초반 감소세가 가장 가파르다.

표 3. 비례위험(proportional hazard) 모형 추정 결과(전문대학)

	일반취업		정규직		고임금		전공일치	
	Haz. ratio	std. err.						
졸업 나이	1.071	0.015	1.080	0.017	1.193	0.025	1.111	0.017
남성	0.825	0.050	0.852	0.057	1.376	0.161	0.716	0.054
직업체험	1.428	0.071	1.406	0.077	1.216	0.112	1.583	0.100
직업교육	0.854	0.045	0.837	0.050	0.803	0.085	0.892	0.061
기준: 인문사회								
예체능	1.005	0.077	0.974	0.087	0.833	0.148	1.006	0.109
교육	1.565	0.202	1.383	0.199	1.338	0.394	2.397	0.351
자연	0.948	0.120	1.019	0.147	0.907	0.241	1.166	0.182
공학	1.282	0.084	1.376	0.101	2.086	0.255	1.652	0.143
의약	1.370	0.105	1.566	0.130	1.834	0.276	2.193	0.193
_cons	0.015	0.005	0.009	0.003	0.000	0.000	0.004	0.001
p	0.772	0.011	0.771	0.013	0.836	0.025	0.742	0.013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2017~2021.

주: Weibull 분포를 가정한 비례위험모형 분석 결과.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전문대학 졸업생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졸업 나이가 1세 증가할 때 평균적인 순간 취업 확률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일반 취업일 경우 1.07배, 정규직 취업 1.08배, 고임금 취업 1.19배, 전공일치 취업일 경우 1.11배 높아진다. 졸업 연령이 높아지면 특히 고임금 일자리 순간 취업 확률을 크게 증가한다. 일반, 정규직, 전공일치 취업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취업 가능성이 낮다(여성 취업 확률의 71.6~85.2%). 특히 전공일치 취업에서는 여성의 순간 취업 확률과 남성의 순간 취업 확률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만, 고임금 직업을 가질 가능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1.38배 높아 반대의 결과를 보인다. 직업체험이 모든 경우에서 직업교육보다 취업 가능성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체험을 수행할 경우 일반, 정규직 순간 취업률이 약 1.4배 증가하고, 고임금 일자리 취업 1.2배, 전공일치 일자리 취업 가능성이 1.6배 증가한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예체능계열과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과 인문사회계열의 취업 가능성은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교육계열 전공은 일반취업, 정규직 취업, 전공일치 일자리 취업 가능성에서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보다 각각 1.6배, 1.4배, 2.4배 더 높은 취업 가능성을 보이지만 고임금 일자리 취업 확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공

학과 의약 전공자는 모든 취업 경우에 있어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보다 취업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공학계열은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보다 고임금 일자리에서의 순간 취업 확률이 2.1배 더 높고, 의약계열 전공자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보다 고임금 일자리 순간 취업 확률 1.8배, 전공일치 일자리 순간 취업 확률 2.2배 더 높다. 따라서 공학 및 의약계열 전공자가 다른 계열에 비해 취업의 양과 질에서 더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4>는 4년제 대학 졸업생 표본을 자료로 추정한 결과를 보여 준다. 일반취업과 정규직 취업, 전공일치 취업의 경우 4년제 대졸자 표본에서 p 추정치가 전문대학 졸업생 표본에서보다 더 크게 나타나지만, 고임금 취업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다. 기저 취업률(baseline hazard)의 규모를 결정하는 절편항 추정치를 비교해 보면 모든 취업 종류에서 4년제 대학 졸업생 표본에서 그 추정치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설명변수가 모두 0일 때 4년제 대졸자의 졸업 첫해 순간 취업 가능성이 전문대학 졸업생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p 추정치와 함께 해석해 보면 4년제 대학 졸업생은 전문대학 졸업생보다 첫해 순간 취업 가능성이 높고, 구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겪게 되는 순간 취업률 감소세는 더 작음을 알 수 있다.

졸업 당시 나이가 한 살 많을수록 일반 및 정규직 취업 순간 취업 확률은 1.04~1.05배 높아지고 고임금 일자리 취업 가능성은 1.07배 높아진다. 일반취업, 정규직 취업, 전공일치 취업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순간 취업률이 낮지만(여성의 0.90배~0.95배), 고임금 일자리 취업의 경우 남성이 1.33배 더 높다. 직업교육은 모든 경우에서 유의한 효과가 없지만 직업체험은 모든 경우에서 순간 취업률을 1.2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체능계열 전공자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보다 1.12배 일반취업 확률이 높고, 전공일치 취업 확률은 1.26배 높다. 하지만 고임금 일자리 취업 확률은 0.67배로 훨씬 더 낮은 수준을 보인다. 교육계열은 모든 경우에서 인문사회계열 졸업생보다 순간 취업률이 높고, 특히 고임금 취업은 1.48배, 전공일치 취업은 1.93배로 큰 차이를 보인다. 자연계열은 인문사회계열보다 일반, 고임금, 전공일치 일자리 순간 취업률이 1.14~1.17배 더 높고, 공학계열은 인문사회계열보다 일반, 정규직, 고임금, 전공일치 순간 취업률이 각각 1.22배, 1.27배, 1.47배, 1.49배 높다. 마지막으로 의약계열은 인문사회계열보다 모든 취업 정의에 있어 순간 취업률이 2배 이상 높다. 특히 고임금 일자리와 전공일치 일자리 순간 취업률은 3배 이상 더 높다.

표 4. 비례위험(proportional hazard) 모형 추정 결과(4년제 대학)

	일반취업		정규직		고임금		전공일치	
	Haz. ratio	std. err.						
졸업 나이	1.043	0.011	1.047	0.012	1.070	0.015	1.034	0.013
남성	0.926	0.035	0.953	0.040	1.328	0.075	0.901	0.042
직업체험	1.281	0.041	1.252	0.045	1.259	0.060	1.200	0.047
직업교육	0.990	0.033	0.980	0.036	1.033	0.052	0.978	0.040
기준: 인문사회								
예체능	1.122	0.072	0.965	0.070	0.665	0.084	1.262	0.098
교육	1.375	0.082	1.370	0.091	1.481	0.129	1.929	0.129
자연	1.140	0.065	1.161	0.073	1.179	0.110	1.164	0.087
공학	1.224	0.048	1.269	0.055	1.465	0.082	1.488	0.072
의약	2.361	0.169	2.468	0.191	3.250	0.299	3.393	0.256
_cons	0.019	0.005	0.013	0.004	0.003	0.001	0.017	0.005
p	0.839	0.009	0.856	0.010	0.839	0.013	0.798	0.01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2017~2021.

주: Weibull 분포를 가정한 비례위험모형 분석 결과.

IV 구직기간과 첫 일자리 근속기간

1. 첫 일자리 근속기간에 대한 요약 통계

첫 일자리 근속기간이 짧다는 것은 그 직업이 임시직이거나 일자리 질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첫 일자리 근속기간은 첫 일자리 질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번 절에서는 대졸자의 첫 일자리 근속기간을 통해 첫 일자리의 질을 가늠해 보고 첫 구직기간과 첫 일자리 근속기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24개월 정도로 초대졸과 대졸의 평균 차이는 없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평균 근속기간에는 격차가 있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이 더 짧고, 남성과 여성의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의 차이는 대졸보다 초대졸 사이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초대졸 남성의 6.7%, 여성의 9.4%는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후 조사 시점까지 다른 일자리를 가진 경험이 없었다. 대졸자의 경우 이 비율이 전문대학 졸업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남성은 10.5%, 여성은 12.6%가 첫 일자리를 그만

둔 이후부터 조사 시점까지 두 번째 일자리를 가지지 않고 있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후부터 조사 시점까지의 평균 기간은 초대졸 남성 17개월, 초대졸 여성 41개월, 대졸 남성 20개월, 대졸 여성 33개월이다. 즉, 이들은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후 평균 1년 이상 미취업 혹은 비경제활동 상태인 것이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비자발적 이유(임시직이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에 의해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는 초대졸 남성 12.9%, 초대졸 여성 14.1%, 대졸 남성 17.6%, 대졸 여성 16.7%로 20% 미만이다. 대체로는 자발적으로 첫 일자리를 그만두고, 4년제 대학 졸업생보다 전문대학 졸업생이 자발적으로 첫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50% 이상이 근로 여건 불만족으로 첫 자리에서 퇴직하였다. 초대졸 남성은 직장이나 하고 있는 일이 전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11.4%로 두 번째로 높은 퇴직 사유였고, 초대졸 여성은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건강, 가사, 육아, 결혼, 학업 계속 등)가 18.3%로 두 번째로 높은 퇴직 사유였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도 근로 여건 불만족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남성 46.9%, 여성 45.2%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 높은 퇴직 사유는 전문대학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대졸 남성은 일자리 전망(10.4%), 여성은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건강, 가사, 육아, 결혼, 학업 계속 등) (18.0%)로 나타났다.

근로 여건 불만족으로 응답했던 청년의 63.6%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고용형태였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던 근로자는 14.2%였다. 근로 여건 불만족으로 응답했던 청년의 29.2%는 사무종사자, 28.2%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0.3%는 서비스 종사자였다. 근로 여건 불만족을 응답한 청년의 79.9%는 첫 직장 월 급여가 200만 원 미만이었고, 1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42.1%, 1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11.5%에 달하였다. 즉, 이들의 고용형태, 근로형태, 임금 수준으로 미루어 근로 여건 불만족의 구체적인 이유는 고용이나 근로 형태보다는 임금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임금수준에 따른 첫 직장 근속 생존함수
(전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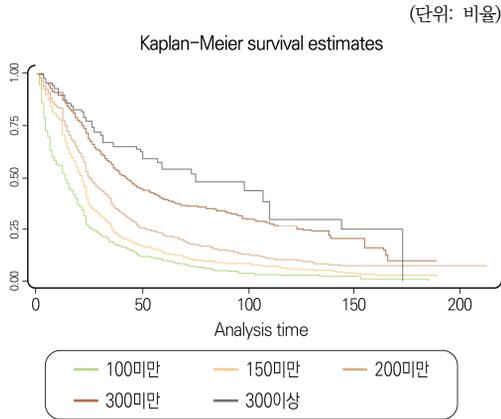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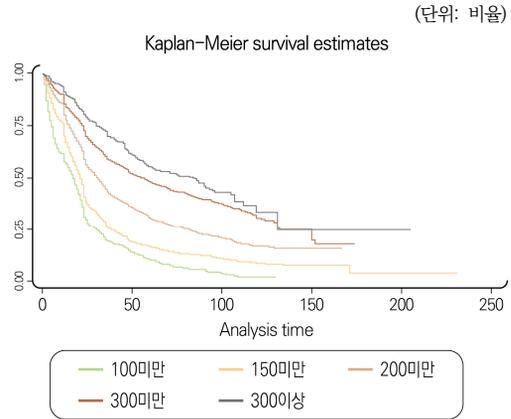


그림 4. 임금수준에 따른 첫 직장 근속 생존함수
(4년제 대학)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2017~2021.

주: 가로축은 첫 일자리 근속기간을 나타내며 단위는 개월. 세로축은 각 근속기간 시점까지 첫 직장에 남아 있을 확률을 나타냄. 첫 일자리에 계속 일하는 경우(right-censored sample)까지 포함하여 추정된 결과임. 가중치 사용.

첫 직장에서의 임금과 근속기간의 관계를 더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임금 수준별로 첫 직장 근속기간에 대한 Kaplan-Meier 생존함수를 추정해 보았다. [그림 3]은 전문대학 졸업생, [그림 4]는 4년제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가로축은 첫 직장 근속기간으로 단위는 개월이고, 세로축은 각 근속기간 시점까지 첫 직장에 남아 있을 확률을 나타낸다. 두 학력 수준 모두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모든 근속기간에서 첫 직장을 그만둘 확률이 낮으며, 첫 직장에서 오래 근속하는 모습을 뚜렷이 보인다. 전문대학 졸업생보다 4년제 대학 졸업생 사이에서 100만 원, 15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단기에 첫 직장을 그만둘 확률이 더 높다.

2. 첫 일자리 근속기간에 대한 생존분석

다음으로 첫 일자리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어떤 경우에 첫 일자리 근속기간이 길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첫 일자리를 구하는 데 기간이 오래 걸렸던 경우 첫 일자리 근속기간이 길어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첫 구직기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함인지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표본은 대학 졸

업자 중 첫 일자리를 가진 경험이 있고, 첫 일자리 시작 및 이직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청년으로 한정하였다.

분석 모형은 위 구직기간 생존분석에 사용했던 모형과 동일하게 Weibull 분포를 가정한 비례위험(proportional hazard) 모형을 사용한다. 다만 고용형태에 따라 기저 위험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모형에 반영하였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첫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hat{h}(t_j | x_j) = \begin{cases} \exp(x_j\beta) p_1 t^{(p_1-1)} \\ \exp(x_j\beta) p_2 t^{(p_2-1)} \end{cases}$$

모형에서는 정규직과 임시계약직 혹은 비임금 근로자 여부에 따라 p 추정치가 달라지고, 기저 위험함수 $h_0(t) = p_i t^{(p_i-1)}$ 의 형태가 달라진다. 그 외 요인은 순간 퇴직률(hazard)에 동일한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각 결과의 마지막 열은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수 추정치(coef.)에 지수함수(exponential function)를 취하여 비례위험을 계산한 것이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졸업생 표본 모두 첫 구직기간 증가는 첫 일자리 순간 퇴직률을 낮추고 첫 일자리를 오래 지속시키는 영향이 있다. 4년제 대학 졸업생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생보다 그 영향이 작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위 결과는 첫 구직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첫 일자리를 오래 지속시키고, 첫 일자리 질이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적 증거일 수 있다. 하지만 분석표본이 첫 일자리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만을 포함하므로 이를 단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논의는 곧 다시 진행하도록 한다.

표 5. 첫 일자리 순간 퇴직률에 대한 비례위험(Proportional Hazard) 모형 추정 결과

	전문대학			4년제 대학		
	coef.	s.e.	PH	coef.	s.e.	PH
구직기간	-0.011	0.001	0.989	-0.009	0.001	0.991
남성	0.044	0.042	1.045	-0.024	0.033	0.976
졸업 나이	0.017	0.011	1.017	0.023	0.009	1.023
전공(인문사회 기준)						
예체능	0.131	0.047	1.140	0.061	0.049	1.063
교육	-0.284	0.061	0.753	-0.414	0.050	0.661
자연	-0.054	0.078	0.947	-0.128	0.051	0.880
공학	-0.212	0.043	0.809	-0.163	0.035	0.850
의약	-0.131	0.049	0.877	0.140	0.049	1.150
미혼	0.270	0.035	1.310	0.182	0.028	1.199
고용형태(1년 이하 계약직 기준)						
1년 초과 계약	-0.369	0.058	0.692	-0.437	0.048	0.646
임시직	-0.001	0.069	0.999	-0.150	0.061	0.861
정규직	-0.536	0.084	0.585	-0.582	0.073	0.559
비임금	-0.295	0.158	0.745	-0.491	0.088	0.612
월 급여(100만 원 미만 기준)						
100~150만 원 미만	-0.174	0.053	0.840	-0.172	0.050	0.842
150~200만 원 미만	-0.384	0.055	0.681	-0.478	0.049	0.620
200~300만 원 미만	-0.817	0.066	0.442	-0.814	0.053	0.443
300만 원 이상	-1.051	0.175	0.350	-1.125	0.077	0.325
_cons	-3.634	0.247	0.026	-3.787	0.239	0.023
ln_p						
정규직	-0.068	0.023	0.934	-0.151	0.019	0.860
_cons	0.131	0.019	1.140	0.184	0.015	1.202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2017~2021.

주: 대학 졸업자 중 첫 일자리 경험이 있고, 첫 일자리 시작과 이직 시점이 관찰된 표본. PH는 계수 추정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비례 위험을 나타냄.

기저 위험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임시계약직이나 비임금 근로자와 다른 모양을 나타낸다. 전문대학 졸업생 중 정규직의 p 추정치는 $1.065(=0.934 \times 1.140)$, 그 외 고용형태는 1.140으로 모두 1보다 큰 p 값이 추정되었다. 1보다 큰 p 추정치는 첫 일자리에서 근속기간이 증가할수록 순간 퇴직률이 증가함을 의미하는데, 정규직보다 그 외 고용형태에서 순간 퇴직률이 더 높은 것이다. 전문대학 졸업생 결과와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 졸업생 표본에서도 정규직일 때의 기저 위험(baseline hazard)이 그 외 고용형태일 때보다 훨씬 작음을 알 수 있다. 전문대학 졸업생과 비교해 보면 비정규직의 기저 순간 퇴직률(baseline hazard)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정규직의 기저 순간 퇴직률(baseline hazard)은 4년제 대학 졸업생 표본에서 더 작게 추정된다. 이로 인해 전문대학 졸업생보다 4년제 대학 졸업생 사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기저 위험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전공보다 예체능 전공의 첫 일자리 순간 퇴직률이 높고, 교육, 자연, 공학계열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전공보다 첫 일자리 순간 퇴직률이 더 낮다. 미혼인 경우 기혼인 청년보다 첫 일자리 순간 퇴직률이 1.2~1.3배 더 높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직업이 안정적인 수록 첫 일자리 순간 이직률은 낮다. 1년 이하 계약직보다 1년 초과 계약직의 순간 퇴직률이 65~69% 수준으로 더 낮고, 정규직의 순간 퇴직률은 0.56~0.59%로 더 낮은 수준을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월 급여가 높을수록 첫 일자리 순간 퇴직률이 낮아지며 첫 일자리에 더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3. 구직기간과 첫 일자리 특성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첫 일자리에 이탈할 가능성이 소폭이지만 낮아진다는 위 결과는 구직기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위 분석표본이 첫 일자리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 이해를 넓히기 위해 첫 구직기간과 첫 일자리 질에 관하여 조금 더 분석을 진행해 보았다.

구직기간은 내생변수이므로 회귀분석으로 구직기간이 첫 일자리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아무런 조치 없이 추정할 경우 편의(bias)가 발생한다. 예컨대, 개인의 능력이 높을수록 첫 구직기간이 짧아지고, 구직기간 자체는 첫 일자리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회귀분석 모형에서 구직기간 증가가 일자리 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는 음의 편의(bias)를 내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과 첫 일자리 질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두 가지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첫 일자리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만을 표본으로 하여 분석하

고, 다음으로 첫 일자리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포함한 표본을 분석한 뒤 두 결과를 비교하여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종속변수는 첫 일자리 질이며 첫 일자리 질을 대변하는 변수로 정규직 여부와 고임금(월 200만 원 이상) 여부를 고려하였다. 주요 설명변수는 취업까지 걸린 기간이고, 그 외에 성별, 졸업 나이, 학력(초대졸 또는 대졸), 전공 더미, 조사 연도 더미를 포함하여 로짓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시점까지 첫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졸업 시점과 조사 시점의 차이를 구직기간으로 설정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구직기간은 내생변수이므로 인과적 해석은 불가능하다. 개인의 잠재적 능력이 높을수록 정규직 및 고임금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이 높아지고, 구직기간은 짧아진다고 가정할 때, ① 구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추정된 양질의 일자리 취업 확률이 높아진다면 구직기간의 효과는 과소추정되고, 구직기간이 양질의 일자리로의 취업 확률을 높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② 구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추정된 양질의 일자리로의 취업 확률이 낮아진다면 구직기간의 부정적 효과는 과대 추정된 것이므로 구직기간이 양질의 일자리로의 취업 확률을 반드시 낮춘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구직기간과 양질의 일자리로의 취업 확률이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모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졸업 후부터 조사 시점까지 첫 취업을 못한 경우 졸업 시점과 조사 시점의 차이를 구직기간 변수로 사용하였고, 정확한 실제 구직기간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첫 취업 시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졸업과 조사 시점 격차보다는 클 것이므로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 가능성 및 정규직, 고임금 일자리로의 이행 확률이 낮아진다면 우중도절단된 표본(right-censored sample)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의(bias)는 구직기간이 일자리 이행 확률에 미치는 음의 영향을 과소 추정할 것이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첫 구직기간이 정규직 및 고임금 첫 일자리를 가질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표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취업 경험이 있는 표본에서는 구직기간이 증가할수록 정규직 및 고임금 일자리로의 취업 확률이 높아진다. 개인의 비관측 능력이 높을수록 정규직 및 고임금 일자리로의 취업 확률이 높아지고, 구직기간은 짧아진다고 가정한다면 이 결과는 구직기간의 증가가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행 확률을 높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첫 일자리 취업에 성공한 청년 사이에서 구직기간의 증가는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포함한 표본에서 구직기간의 증가는 정규직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낮추고, 고임금 취업 가능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사라진다. 조사 시점까지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은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들보다 평균 구직기간이 길고, 긴 구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미취업 상태이기 때문에 정규직 및 고임금 취업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이다. 이 경우 길어진 구직기간이 첫 일자리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과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구직기간이 긴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선택 편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직기간과 첫 일자리 혹은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행 가능성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일부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① 자발적으로 취업을 포기하거나 ②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더 어려운 상황(예컨대, 낙인효과)에 놓일 가능성이 있음을 함의한다.

V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대졸자 노동시장 이행 기간에 대한 정형화된 사실을 정리하고, 노동시장 이행 기간이 첫 일자리 취업 가능성과 첫 일자리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노동시장 이행 기간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기간이 짧고, 남성과 여성의 구직기간 격차는 4년제 대학 졸업생 사이에서 전문대학 졸업생의 경우보다 더 작게 나타난다. 남성은 초대졸 남성과 대졸 남성의 첫 일자리 평균 이행 기간은 거의 같으나 여성은 초대졸 여성의 이행 기간이 대졸 여성의 이행 기간보다 짧다. 정규직 또는 고임금의 첫 일자리 이행 기간은 비정규직 또는 저임금 첫 일자리로의 이행 기간보다 더 길다. 대체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일자리 특성별 평균 구직기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대졸 남성보다는 초대졸 남성에게서 일자리 특성별 평균 구직기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대학 종류와 상관없이 첫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순간 취업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4년제 대학 졸업생은 전문대학 졸업생보다 졸업 직후 순간 취업 가능성이 더 높고, 구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겪는 순간 취업 감소세는 더 작아 전문대학 졸업생이 노동시장 이행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양질의 일자리일수록, 특히 고임금 일자리일수록 구직기간에 상관없이 순간 취업률은 낮고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고임금 일자리 취업이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일자리 퇴직 사유는 비자발적 사유보다 자발적 사유가 더 많고, 4년제 대학 졸업생보다 전문대학 졸업생이 자발적으로 첫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자발적인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사유는 임금 수준이었다. 첫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첫 일자리 근속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나 첫 구직기간이 첫 일자리 질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표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또한 확인하였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첫 구직기간이 길수록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사 당시 구직 중인 청년까지 포함할 때 이 효과는 사라진다. 이는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이 일부 청년에게는 더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일부 청년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본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대학 졸업 후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고자 첫 구직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감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적으로 긴 구직기간 이후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청년들은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자발적으로 취업을 포기하거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더 어려운 상황(낙인효과)에 놓일 가능성이 있음을 함의한다.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긴 구직기간을 거치고 목표한 취업에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취업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는 알 수 없다. 정책 관리자와 교육자는 장기 구직 청년들이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필요한 고용 지원을 사전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직업교육보다는 현장 체험이 취업 가능성을 높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고용 정책 및 취업 관련 교육에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빠르게 첫 취업에 성공하지만 남성보다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더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일자리 질보다는 빠른 노동시장 이행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에게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일자리 질은 이후 임금 근로의 기회비용을 낮추어 경력단절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고학력 여성들이 자신에게 맞는 경력을 개발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곽은혜(2021). 경기침체와 청년·여성 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2010~2021).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 https://eboard.moel.go.kr/indicator/detail?menu_idx=72# (검색일자 2023. 5. 24.)

Choi, E. J., Choi, J. & Son, H.(2020). The long-term effects of labor market entry in a recession: Evidence from the Asian financial crisis. *Labour economics*, 67, 101926.